

1900년대 대한제국 초기 익산행정 기록 발간

익산시·원광대 한문번역연구소, 익산 총쇄록(상) 번역 발간
1900~1902년 오형묵 익산군수 농정행정·일상 기록 담아

익산시가 1900년대 대한제국 초기의 익산행정과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을 선보였다.

시는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소장 이의강)와 함께 근대기 고도 익산의 생생한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익산 총쇄록(상)'을 번역하여 '익산문헌자료총서4'로 발간했다.

이번의 총서 발간은 금마지(2019), 여산·용안·함열읍지(2020), 금마일기·유금마성기·금마별가(2021)에 이어 네 번째 번역서이다.

'익산총쇄록'은 1900년 12월부터 1902년 5월까지 익산군수로 재임한 채원 오형묵(1834~1906)이 지은 총쇄록 중 16책과 22·23책에 수록되어 있는 '익산편'을 번역한 것이다.

대한제국 초기의 지방행정에서부터 군수의 일상생활까지 익산군과 관련된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가 담겨있어서 익산지역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근대기 지방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익산편에는 기우제문 11편과 편지(書) 28편, 향교에 내리는 하첩(下帖) 3편과, 전령 11편, 설(說) 2편 등이 실렸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와 함께 근대기 고도 익산의 생생한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익산 총쇄록(상)'을 번역하여 '익산문헌자료총서4'로 발간했다.

특히 '각 읍과 촌에 갖가지 폐단을 금지시키는 25개의 조항'을 제시해 지역 질서 확립 노력, 훈장제도를 통한 전통교육의 장려, 영농을

강조했던 것이 눈에 띈다.

농사와 관련이 있는 저수지와 방죽 수리에 대한 지속적 독려, 극심한 가뭄 해소를 위해 11번에 걸친 기우제 실시, 흉년을 당한 백성들의 세금 감면 등 익산군 수령으로서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양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 처리에 임하는 전라북도 양무감리로서의 노력 등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오형묵 군수가 지역의 명사들과 수차례의 서신 교환을 통해 시문과 화초를 나누며 교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서 당시 지방 수령들의 일상적인 대외 활동의 단면도 볼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익산 고문헌 자료 발굴과 번역서 발간에 힘을 쏟고자 한다"며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도시 익산의 가치 확산과 품격있는 고도 익산의 정체성을 다지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총쇄록은 초중고,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익산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려 관심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익산시청 홈페이지/문화관광)역사/문화재)참고자료)익산문헌자료총서)

/익산=이재춘 기자

창작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 공연

정읍시, 10일 전봉준 장군 활약상 판소리로 엮어 총 3부 구성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을 진두지휘했던 전봉준 장군의 활약상을 재구성한 창작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 공연을 선보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창작판소리연구회(원장 임진택)이 주관하는 '녹두장군 전봉준' 공연은 동학농민혁명의 탄생과 과정을 비롯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전봉준 장군의 활약상을 판소리로 엮어 낸 공연이다.

공연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연지아트홀에서 펼쳐지며, 정읍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총 3부로 구성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무능한 왕권과 세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련한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수운 최재우, 해월 최시형, 녹두장군 전봉준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1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이자 판소리 '수궁가' 예능 보유자인 왕기석 명창이 '담학을 금(禁)해주시오'를 주제로 교조 신원과 고부 봉기의 내용을 다룬다.

2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이자 판소리 '심청가' 예능 보유자인 송재영 명창이 '고통받는 민중은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를 주제로 무장기포와 백산포고, 황토현 전승, 전주성 입성을 열창한다.

마지막 3부는 오랜 기간 동학에 천착하며 이번 작품의 창본을 완성한 명창 임진택이



'갑오세 가보세'를 주제로 집값소 설치와 우금치 전투 등의 내용을 노래하며 공연을 장식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창작판소리 공연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의 혁명정신이 시민들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문화재단,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 행사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9일 오후 6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2022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로 예술후원을 이어준 후원인들을 위한 따뜻한 송년 행사로, 이팝프렌즈 시상식과 팔복다북 음악회, 경품추첨 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다사다난했던 2022년, 이팝프렌즈 후원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모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기초 문화재단 최초 인증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며 "후원인 여러분이 꽃피워 준 예술후원을 후원인의 밤 행사를 통해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 나춘균

회장은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 행사를 위해 후원해 준 향토기업인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시상식의 수상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창작활동을 이어온 예술인을 선정해 제정의 취지를 살리려 했다"며 "또조록 다가오는 행사를 통해 전주의 예술후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 행사는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경품행사도 마련했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미래전략팀(063-211-927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마중시루' 개최

내년 3월 5일까지 본관 1·2전시실서 '산' 관련 작품 만날 수 있어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예선)은 2022년 3월 5일까지 본관 1·2전시실에서 '마중시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도립미술관에 따르면 개관 이후 현재까지 소장품 중 일부를 선별해 전시를 개최하며 도민의 공공자신인 미술관 소장품의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미술 문화의 자원을 확산시켰다. 특히 지난 11월 18일부터 개최한 '마중시루'는 '산'과 관련한 작품들을 엄선해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전시명 '마중시루'의 뜻은 산의 정령을 미주하면서 맞이하는 의례를 의미한다. 관람지는 전시장에 소환된 산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미주하게 된다.

한편 '마중시루'는 2023년 3월 5일까지 진행되며,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월요일은 휴관이고, 전시 관람료는 무료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 중 고보연 작가의 '그의 이름은'을 제외한 모든 작품은 전북도립



미술관 홈페이지(jm.go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00-6888)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음악과, 제40회 정기연주회 오페라 '마술피리'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는 제40회 정기연주회를 지역민과 함께하는 오페라 '마술피리'로 꾸민다고 전했다.

공연은 8일과 9일 양일간 오후 7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전석 초대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열리는 오페라 마술피리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로 한 작품 안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즐거이 안에 날카로운 풍자와 의미심장한 은유를 담은 다층적인 작

품이다.

이은희 교수가 총감독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전북대 음악과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음악과 합창단의 웅장한 연주와 목소리가 무대를 채운다.

김지환 학과장은 "전북대학교 음악과의 40주년 정기연주회를 맞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오페라 무대를 준비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익숙한 곡을 통하여 초겨울 따뜻한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